

캘리포니아주, 교회 현장 예배서 '찬양 중단' 가이드라인 제시

현장 예배 시 찬양 금지, 적잖은 논란 일으킬 전망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교회 현장 예배 시 찬양을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가주 공공보건국이 지난 1일 업데이트 한 규정에 따르면 "교회 실내 예배 시 100명 이하 및 정원의 25% 중 적은 수로 모임을 허가한다"는 기존 방침에는 변함이 없으나, 비말을 통해 전염될 가능성이 높은 찬양에 대해서는 중단할 것을 권장한 것이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보건국의 가이드라인으로 위반에 따른 단속 여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예배 시 배제할 수 없는 찬양을 금지하는 것은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킬 전망이다.

도랜스 선한목자교회 김현수 목사는 "주정부가 문제를 삼는 지난 3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리는 미국 기독교인들. ©Fellowship Church

월 한 미국 교회의 현장 찬양 모임을 안 썼을 때이고, 지금은 정부 방역수칙에 따라 인원 제한을 둔 상태에서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

다"며 "마스크를 쓴 상태에서의 찬양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가주기쁨의교회 이환영 목사는 "그동안 현장예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한으로 찬양해왔고, 어떤 분들은 페이스 커버까지 쓰면서 가급적 찬양을 줄여왔다"며 "정부가 제시한 기준 이상으로 방역 수칙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예배 시 찬송까지 중단하라는 지침은 말도 안된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가주 공공보건국은 현장예배 시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및 손세정제 사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 안전 지침을 철저히 지키고 가능하면 온라인 예배나 야외예배, 드라이브 인 예배를 시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공용 물품에 대한 소독과 실내 환기, 일회용품 사용 등 철저한 방역과 위생 유지를 강조했다.

김동욱 기자

트럼프 대통령, 독립기념일 연설 급진좌파 등 지목... "그들의 목표는 파괴"

4일 저녁 백악관에서 열린 독립기념일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내 "급진 좌파(the radical left)"에 대해 언급하며 그들을 향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크리스천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동안에도 백악관 밖에서는 데모 시위자들이 미국 국기를 짓밟고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비롯해 '혁명이 필요한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등의 파켓 시위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미국의 영웅들이 나치를 물리치고, 파시스트들을 몰아내고, 공산주의자들

을 쓰러트리며, 미국인의 가치를 살리고, 미국인의 원칙을 유지하며, 테러리스트를 지구 끝까지 쫓아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지금 급진좌파, 마르크스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선동가, 약탈자,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물리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행정부 입장을 대변하여 그는 "누구도 인종이나 배경에 따라 우리 국민을 분열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증오와 불화, 불신을 조장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모든 시대에는 현재의 권력을 얻기 위해 과거에 대해 거짓말 하려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왔다"고 언급하며 "우리 역사에 대해 거짓말 하는 사람들, 우리가 누구인지 부끄러워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정의나 치유에는 관심이 없다"며 "그들의 목표는 파괴(demolition)"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건설한, 지구상의 가장 위대한 조직인 미국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며 "모든 가정이 안전하고, 모든 아이들은 사랑에 둘러싸여 있고, 모

든 공동체가 동등한 기회를 갖고, 모든 시민은 위대하고 영원한 존엄성을 누리는 미래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독립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사우스 다코나주 러시모어 산(Mount Rushmore)을 찾았다.

최근 인종 차별 시위대원들은, 이산에 새겨진 미국 전직 대통령 4명의 얼굴상을 둘러싸고, 그들 중 노예를 소유했거나 인종차별과 식민주의를 미화한 대통령의 얼굴이 있다며 조각상 철거를 주장하고 있다.연설에 앞서, 시위대와 이에 합류한 주

민 일부는 도로를 봉쇄하고 독립기념일 행사에 반대했다.

이날 대규모 청중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념물 철거는 미국의 역사를 지우고 영웅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시위대를 향해서는 "역사를 말살하려는 무지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날 연설에서 그는 "좌파 문화 혁명은 미국 혁명을 타도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며 "성난 폭도들이 우리 건국자들의 동상을 철거하고 가장 신성한 기념비를 훼손하고, 우리 도시에 폭력적인 재앙의 파도를 일으키려 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김유진 기자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저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이 동희 원장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Menlo Ave, 뉴 서클 호텔 건너편)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 할인 혜택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OLYMPIC ZION AUTO
 믿고 맡겨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SE CERTIFIED
Warranty for All Work Performed
 ■ Brake Service
 ■ Tune-Ups
 ■ A/C Service
 * 월~금 : 8AM~6PM, 토 8AM~4PM * 3210 W, Olympic Blvd., LA, CA 90006
T. (323) 730-0112, (323) 735-3180

APPLY or TRANSFER NOW

GOD FIRST SINCE 1899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한국어 프로그램
LA · 오렌지 캠퍼스
ONLINE COMING SOON
 • 목회학 (MAPS)
 • 목회학 석사 (M.Div)
 • 목회학 박사 (D.Min)

2020 청소년 연합수련회 코로나 19로 취소

청소년 건강과 안전 위해 행사 열지 않기로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원장 진유철 목사)이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를 섬기고자, 2016년부터 매년 7월에 개최해 온 청소년 연합수련회가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취소됐다.

나성순복음교회는 “지난 2019년 제4회 수련회 당시 7개 교단, 19개 교회로부터 115명의 청소년들과 이들을 섬기기 위한 109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석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했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다. 그러나 올해는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이 행사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내년을 기약하기 바란다. 이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청소년들과 교회들 되기를 기도한다”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연합수련회는 학생과 교사 부족, 제약된 재정 등 자체 청소년 수련회를 개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남가주 한인교회를 위해 나성순복음교회의 후원으로 매년 7월 초교과 연합 수련회로 진행돼 왔다.

김동욱 기자

올해는 2020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이 남가주 지역 한인교회를 섬기고자 2016년부터 매년 7월에 개최해 온 청소년 연합수련회를 올해는 COVID-19에 따른 규제와 청소년들의 건강 및 안전을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는 없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며 내년을 기약하기 바랍니다. 이 혼란과 위기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청소년들과 교회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문의 : 나성순복음국제금식기도원
Tel 951.928.4415 / lafgced@gmail.com
30250 Gunther Rd. Romoland, CA 92585

“작은 나눔 모여 따뜻한 이웃사랑 밝혔다”



미주복음방송은 지난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애너하임 본사에서 300여 명에게 생필품을 전달했다.

미주복음방송(AM 1190)은 지난 24일, 코로나19 사태로 영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생필품, 생계비 지원을 위한 “2020 나눔 On(온) 특별 공개 생방송”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했다. 미주복음방송이 5월 1일부터 두 달 동안 모금된 현금 후원 총액은 10만 829달러, 후원자는 총 196명이라고 밝혔다. 또 물품 후원은 쌀 285포, 화장지 4,316 롤, 마스크 17,940장, 손세정액 4,020개, 비누 50개, 옷, 상품권 300장, 김치 18통, 스낵 300캔, 폼 크린저 610개, 라면 2,104개, 야채 및 과일 300 박스이며 후원자는 총 16명이라고 알려졌다.

현재까지 현금 지원 수혜자는 총 28명, 지원 총액은 2만 7천80달러였으며, 물품은 모두 400여 명에게 쌀 381포, 화장지 1,220 롤, 마스크

4,960장, 상품권 248장, 김치 18통, 스낵 300캔, 폼 크린저 600개, 라면 1,158개, 야채 및 과일 300 박스가 전달됐다고 밝혔다.

미주복음방송 대외협력 김병호 목사는 “실시간 기금 마련을 통해 모인 성금은 당초 계획하였던 목표액을 상회했다”며 “이 성금은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있거나, 후원과 동참을 원할 경우 주저 없이 연락해 달라”고 말했다.

미주복음방송은 코로나 사태가 호전될 때까지 “나눔-On(온) 캠페인”을 지속할 예정이다.

문의 전화 714-484-1190, 웹사이트 www.kgbc.com

김동욱 기자

LA 한인가정상담소 카니 정 조 소장 사임

지난 11년간 한인 가정상담소를 이끌어 온 카니 정 조 소장이 이직으로 인해 사임한다. 카니 정 조 소장은 오는 7월 31일까지 근무할 예정이며 캐서린 엄 부소장이 신임 소장이 결정되기 전까지 업무를 맡게 된다.

한인 가정상담소는 “카니 정 조 소장이 재직하는 동안 한인가정상담소의 직원과 예산이 3배 이상 늘었고, 가정폭력예방 및 상담프로그램을 확대했다. 2016년에는 위탁가정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한인가정상담소의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카니 정 조 소장은 “2009년 부임한 이후, 지난 11년간 저를 믿고 도와준 직원과 이사진, 그리고 한인 커뮤니티에 감사한다”며 “앞으

로도 한인 및 아시아인들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인가정상담소 이사진은 특별 위원회를 구성하고 후임자 찾기에 나선다. 신임 소장직 채용공고는 한인가정상담소 홈페이지 kfamla.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낸시 박 한인가정상담소 이사장은 “이사진을 대표하여 한인가정상담소 성장에 큰 역할을 한 카니 정 조 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11년 근무 후 사임하는 카니 정 조 소장

다”며 “소장대행을 맡은 캐서린 엄 부소장이 신임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한인가정상담소를 잘 이끌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캐서린 엄 부소장은 “신임 소장이 결정되기 전까지 업무 공백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소장대행을 맡은 엄 부소장은 카니 정 조 소장과의 지난 10년간 한인가정상담소를 함께 이끌어 왔다.

한편 2009년 한인가정상담소 소장으로 부임하기 전 카니 정 조 소장은 LA 주거권 센터(Housing Rights Center), 일리노이 시카고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의 공공 서비스 업무 담당 변호사로 7년간 활동했다.

효사랑 선교회 시니어대학 강사 모집

크리스천의 정체성 찾기 운동으로 성경적 ‘효’사역을 실천하는 효사랑 선교회(회장 김영찬 목사)가 새로운 강사들을 모집한다.

모집 과목은 생활영어, 건강체조, ART, 대화 교실, 댄싱, 컴퓨터 강좌, 난타, 서예, Social 서비스, 음악교실, 차매 예방교실, 대화 교실,

레크레이션 등이며 나누고 싶은 지혜와 지식이 있다면 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순수 자원봉사로 운영되는 시니어대학은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자”라는 학훈 아래 후손들에게 물질의 아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신앙 중심의 교양 프로그램을 운

영하고 있다. 문의: 효사랑 선교회 전화: 714-670-8004 E-Mail: hyosarangus@gmail.com 김동욱 기자



김영찬 목사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 의무화 및 미가입 벌금에 대비하세요!

CMML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Since 1996 Operated by Logos Missions, Inc.

*미국 내 의사, 병원 제한 없고,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발생한 의료비 지원
문의: 이사라 213.318.0020 | www.cmmllogos.org

- ▶ 크리스천들의 의료비 나눔 사역
- ▶ 완벽한 한국어 서비스 안내
- ▶ 낮은 본인 부담금 (골드플러스 1년 \$500)

코엠 커뮤니티 센터
KOAM Christian Community Outreach Center

저렴한 비용으로 도와드립니다.

- ▶ 비영리단체등록
- ▶ 특허
- ▶ 비영리 단체 세금 보고
- ▶ 주 교육국(인준) 상담해 드림

David Lee (213)422-8916, (818)523-1119

미국 정착의 지름길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미국정착을 도와드립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임상우를 만나십시오

오직 **이민법**만을 취급합니다
투자이민 상담환영

- ▶ 투자비자 및 이민업무
- ▶ 취업비자 및 이민업무
- ▶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및 이민업무
- ▶ 종교비자 및 이민업무
- ▶ 학생비자
- ▶ 가족초청 이민업무
- ▶ 체류기간 연장
- ▶ 시민권 취득
- ▶ 추방 재판
- ▶ 기타 전반 이민업무

www.davidlimlaw.com

임상우 이민전문로펌 **213.251.5554**

Law Offices of David S. Lim | 3435 Wilshire Blvd., Suite 2550, Los Angeles, CA 90010 / Fax 213.251.8451

미 캘리포니아 교회들 “예배에만 엄격”, 산호세 카운티 상대로 소송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 교회 두 곳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내 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연방 정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최근 뱃티스트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침례교 산하의 사우스리지 교회(Southridge Church)와 산호세 갈보리 채플(Calvary Chapel San Jose)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의 ‘자가격리 명령(shelter-in-place orders)’이 교회내 예배는 금지한 반면, 같은 지역의 쇼핑센터, 부동산 사무실, 여름 캠프, 여름 학교 등의 실내 모임은 허용하고 교회만을 ‘문제(target)’삼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예배는 25명 이하로 제한을 둔 반면, 인종 차별 시위와 같은 대규모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카운티는 자가격리 명령을 어길 시에는, 벌금과 징역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이 소송에는, 교회는 허가된 야외 모임에서도 모든 참석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하라는 명령과, 추적조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카운티의 명령이 캘리포니아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미 전역에서는 여전히 예배 재개와 관련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원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혼선을 빚고 있다. 최근에는 샌디에고 지역 교회들이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예



한 미국교회의 예배당 내부 모습 ©크리스천포스트

배당 수용인원의 25%, 참석자 100명 이하라는 제한 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연방 항소법원과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당시 존 로버츠 대법장은 코로나-19에 따른 행정명령이 ‘교회와 비슷한 세속 모임에도 유사하거나 더 엄격한 제한이 적용된다’는 점과

‘전혀 다른 활동에만 면제, 혹은 관대한 조치를 한다’는 점을 들어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의 자유 보장’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지난달 25일 교회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한 재개방을 허용했지만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현장 예배를 전면 금지해왔다. 그러다가 지난 5일, 실내 예배 없이 야외 예배에 한해서만 최대 25명, 차량 100대까지 참석을 허용했다.

더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미국의 첫 코로나 19 발생지 중 하나로서, 가장 일찍 사망자가 나왔으며 지금까지 4000여명이 감염되고 156명이 사망했다.

김동욱 기자

낮은울타리, 다음세대 위한 ZOOM VBS, TEEN 코스 연다

“방학 동안 하나님과 깊이 만나도록 돕습니다”

ZOOM으로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 신앙성장의 여정
TEEN Prasso Bible Study

2020년 7월 6일~8월 24일 매주 월요일 EST 10:00~11:30 AM (8주간)
대상 : 6~12학년 (2020년 가을학기 기준)
방법 : 각 가정에서 화상 앱 ZOOM (영어권 사역자의 인도로 영어로 진행됩니다.)

등록비 : \$80 (교재비 \$20 별도)
Zelle : woollarius@gmail.com
PayPal : paypal.me/woollarius
Venmo : woollarius

주최 및 문의 : 낮은울타리 미주본부 646-300-4790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는 여름방학 동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연다.

여름방학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하지만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많은 여름 사역들이 취소된 가운데 있다. 이에 낮은울타리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ZOOM으로 개최할 것.

먼저 7월 6일(월)부터는 6학년 부터 12학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Zoom으로 만나는 Teen Prasso Bible Study”가 개강한다.

8월 2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미주 동부시간) 8주간 진행된다. 영어로 된 성경공부 교재를 가지고 영어권 사역자가 인도한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을 나누어 진행하며 등록비는 \$80이다.(교재비 \$20 별도) 등록 후 교재는 집으로 발송된다.

2020년 7월 20일(월)부터는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어린이를 위한 “2020 ZOOM VBS-Backstage With The Bible”를 연다.

7월 23일(목)까지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미주 동부시간) 4일간 진행된다. 모든 프로그램은 영어로 진행되며 등록비는 \$20이다.

조희창 목사는 “다음세대가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Savior)이자 주인(Lord)으로 모셔들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한 여름 사역들이 매우 중요하데 올해는 코로나로 기회가 제한돼 매우 안타까워 줌(Zoom)을 통한 여름 사역들을 준비하게 됐다”며 “다음세대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또한 주인으로 모셔들이는데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 특별히 교회학교가 없어서 이런 기회가 적었던 다음 세대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온라인 모임으로 활성화 이뤄

코로나 사태로 소그룹 현장 모임이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커피브레이크 말씀 소그룹과 인도자 양육을 위한 워크숍이 온라인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주목된다.

커피브레이크는 지난 2월,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부터 온라인 모임과 교육에 대한 준비를 시작했으며 이제는 원거리 교육과 모임의 기틀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 특히 시간과 장소의 제약으로 함께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온라인 모임이 활성화를 이루고 있다.

지난 5월과 6월 인도자 양육을 위해 개설된 “커피브레이크 온라인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1”은 예상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몰려 조기에 등록이 마감됐으며, 참가자 지역도 하와이를 비롯해 미 동부 지역, 캐나다, 독일, 멕시코, 호주에서도 참여할 정도로 국경을 초월해 참여했다.

커피브레이크 한태욱 대표는 “코로나로 인한 격리가 길어질수록 위로와 힘을 주는 것은 말씀이란 것을 깨닫게 된다”며 “7월 중 4개의 온라인 소그룹 인도자 인도자 워크숍1을 마련해 더 많은 분들을 섬기고자 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워크숍은 줌을 이용하여 8시간 오프라인 워크숍의 내용을 2회 또는 3회로 나누어 진행되며



커피브레이크 온라인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 모임

말씀 소그룹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영혼구원을 위한 말씀 소그룹 사역’인 커피브레이크는 올해 50주년을 맞으며

CRCNA(북미주 개혁교회) 산하 사역이지만 초교파 초교단으로 복음을 사랑하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 현재 24개국, 55개 교단에서 쓰임 받고 있다.

인도자 양육을 위한 [커피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1]에는 지난 30년간 약 20,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하였고 많은 교회들의 소그룹[목장,셀,포도원,구역 등] 인도자 양육에도 쓰임 받았다.

주요 내용은 소그룹의 목적/성경 발견학습/인도자의 태도 및 소그룹 전도 등으로 소그룹 인도의 전반에 관해 배움을 얻고 경험을 나누게 된다.

7월 온라인 소그룹 인도자 워크숍 일정은 다음과 같다.

- 1) 모든 이를 위한 워크숍 - (말씀 소그룹에 관심 있는 누구나) 7월18일, 7월25일(토)
- 2) 목회자를 위한 워크숍 - 7월 14일, 7월 21일, 7월 28일(화)
- 3) 사모를 위한 워크숍 - 7월 31일, 8월 1일(금,토) 8월 2일, 8월 9일 (주일)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의 복음통일선교도서

빛은 그늘 외면하지 않았다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책의 추천자들:
오대희목사(예수전도대), 주선애교수(성신대 명예교수)
이종희교수(예스대대표), 송정영목사(서울신대 공동대표)
권준목사(주빌리미주대표), 신정민목사(서울신대 대표)
유관지목사(통일포럼대표), 김인성목사(KCC공동대표)

* 영어 책은 아예 번역자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20/권당 + \$5 우송료

박상열 목사 책의 편자

지금까지 3만 5천부가 판매된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한/영)과 속편 ‘빛은 그늘 외면하지 않았다’는 북한 김부 총신의 자전적 스토리와 지하성도들의 순교증언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기적같은 여정이고, 우리에게 복음통일의 완수라는 분명한 메시지의 울림이다.
* 체크오더양: GBMW 모든 기부금은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는 세금영수증을 발행해 드립니다.

기독교독자신문 GBMW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T.(425)775-7477 gbmwusa@gideonbrothers.org www.gideonbrothers.org

이벤트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타일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몸자가 할까?
안녕하세요? 18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들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돌리십시오~
당신의 마지막 카드
18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 학위과정: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기독교교육학석사(MAEL), 선교학석사(MMISS)
- 위치: LOS ANGELES CAMPUS, GATEWAY SEMINARY
게이트웨이신학교 본교 (3210 E. Guasti Rd. Ontario, CA 91761-8642)
- 등록마감일: 유학생 6월 1일, 미국거주자 7월 15일

> 한영 이중언어과정은

- 미래 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 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 본 과정은 주로 한국어로 진행되지만,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MORE INFORMATION : 909-687-1649 EXT.1320 KEB@GS.EDU
OR VISIT : www.gs.edu/keb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65

“고 이광덕 목사님(한국문화회관)을 회상하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엘에이 코리아 타운 근처에 버몬트 길과 247가 만나는 사거리 에 가면 각 길 모서리에 “한국문화회관 스퀘어”라고 쓰인 입간판이 서있다. 지난 2013년도에 엘에이 시의원 발의로 “한국문화회관” 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한국문화회관 소재지에서 가까운 그 거리를 선정한 것이다. 그때는 필자가 바로 한국문화회관의 원소재지로 명기되어 있는 성광장로교회에서 담임목회(13년간)를 하던 때이다. 필자의 기억으로 2006년도경에 교회로 한 어르신 목사님이 방문하셨다. 점잖으셨고 첫 음식에 매우 겸손하신 성품이 느껴졌다. 필자는 정중히 목양실로 모셨다. 그 어른이 상기된 얼굴로 말씀을 하시기 시작했다. 필자의 교회는 그 당시 건축한 지가 100년이 되는 엘에이 문화사적으로 되어 있던 건물(1214 W. 24th St)이었다. 필자는 그저 그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 어른이 말씀하셨다. 이 건물은 19세기 말 당시 엘에이 시의회 건물로 지어졌다는 것. 당시엔 엘에이에서 몇 안 되는 큰 건축물이었다는 것. 그러다가 1920년경 엘에이 시청 등이 지금의 다운타운 자리로 옮겨지면서 그 건물은 화란 교민회가 구입하여 교민회관으로 사용하였다 한다. 그러다가 1970년에 “한국문화회관”이 설립되면서 한국문화회관 건물로 등록되었다. 바로 그 어른이 한국문화회관 설립자 이광덕 목사님 이셨다. 그때 한국문화회관을 설립한 목적은 막혀 있던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였다. 이 목사님은 공화당을 이끌고 북한을 찾아 평壤을 주관하면서 전도지와 성경을 은밀히 보급하였고, 빈궁하게 사는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많이 애썼다. 수차례 북한을 방문하면서 북한과 미국 정부에서도 좋은 평판을 받았다. 1974년 한국 박정희 대통령이 미국 순방 중에 엘에이를 방문하여 한인교포 대표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주선한 분이 이 목사였고, 그 장소가 바로 한국문화회관이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붓글씨로 쓰신 ‘나라사랑’이라는 친필 글의 현판을 이 목사에게 선물하였고 지금까지 내내 간직하였다. 그렇게 북한을 출입하다가 변혁적인 북한 당국의 변심으로 이 목사는 간첩 혐의를 받고 북한에 3개월 이상 억류되었다. 그 소식을 듣고 미국 대통령 특사가 파견되어 이 목사를 인도하여 오기도 했다. 그런 시

련을 겪으면서 ‘한국문화회관’ 자리는 페이먼트를 못 내어 결국 스코틀랜드 교민회 건물이 되었다가 1976년에 성광장로교회가 그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목사님은 그날 옛 자리를 지나가다가 그 자리가 한국교회로 되어 있는 것을 보시고 너무도 반가워서 교회로 들어오신 것이다. 필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기록을 조사했다. 엘에이 시청에 가서 교회 주소지를 조회하였는데 기록에 “한국 문화회관”이 남아 있었다. 그리고 한국문화회관은 엘에이 재민 한인 최초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1호로 등록된 것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 성광장로교회는 한국문화회관의 옛 명예를 얻도록 주소지 사용 허가를 동의했고 그 후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한국문화회관의 본부로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엘에이 시는 교회가 있는 사거리를 “한국문화회관 스퀘어”로 지정하여 그 명예를 회복했다. 한국문화회관은 1970년대에 아직 한인 이민자들이 많지 않았던 시절 하나님 사랑과 나라 사랑이 특신하였던 이광덕 목사의 헌신적인 수고로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까지 어우르는 민간 문화 및 선교단체로 많은 사역을 하였다. 아! 우리나라가 이런 해외의 애국지사들 덕분에 나라도 지키고 발전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되었음을 크게 깨달았었다. 연세 높으신 목사님들의 신앙심, 애국심, 영혼사랑의 깊음 등이 많이 그림다. 그 어른들이 한분 한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지난 주간 중 고 이광덕 목사님이 93세를 일기로 아름답고 그러나 고독했던 한 생을 마무리하셨다. 필자는 그분을 만난 것이, 알았던 것이, 그분으로 인해 많은 관계를 맺게 되었던 것이 감사하고 행복하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행복 만들기 (15) 격려

격려는 행복 공장입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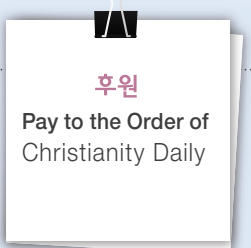
이태리 어느 작은 마을에 오페라 가수를 꿈꾸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혼자 열심히 노래를 연습하다가 드디어 오페라 가수를 선발하는 오디션에 참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며 노래했지만 오디션에서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디션에서 탈락한 이 청년은 크게 좌절했습니다. 그는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네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다는 것을 안다. 이 엄마는 네가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행복하다. 엄마는 네가 꼭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되리라 믿는다.” 이 말을 들은 그 청년은 어머니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노래를 부릅니다. 또다시 피나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우리가 잘 아는 엔리코 카루소입니다. 어머니의 격려로 엔리코 카루소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음악가로 성장하였습니다. 엔리코 카루소(1873-1921)는 성악가들의 목소리가 녹음되기 시작한 이후 최고의 연주력으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성악가로 알려집니다. 아울러 녹음된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100여 개가 ‘오페라의 황제’, ‘테너의 제왕’, ‘성악 발성의 교과서’라는 다양한 별명으로 화려하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화가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격려와 칭찬으로 제2, 제3의 엔리코 카루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주 시골에 말쑥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개구쟁이요 늘 말쑥만 피우는 그 소년은 부모의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 할머니 한 분이 이 소년의 어깨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너는 성격이 쾌활하고 말을 잘하니 훌륭한 목사가 될 수 있겠

다.” 할머니의 격려를 받은 소년은 그 격려를 마음속에 간직합니다. 소년은 훗날 신학을 공부했고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할머니가 무심코 던진 긍정적인 격려로 말쑥꾸러기 소년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격려의 힘입니다. 19세기 초에 활동했던 유명한 화가 벤자민 웨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벤자민 웨스트가 어렸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부모님이 외출하고 웨스트와 여동생만 집에 있는데, 심심한 나머지 바닥에 물감을 풀어서 여동생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뒤에 그의 부모님이 외출에서 돌아왔습니다. 집안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부모님은 벤자민을 야단치지 않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우리 아들 벤자민! 그림 참 잘 그렸네. 우리 벤자민은 커서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특히, 벤자민의 어머니는 벤자민을 꼭 안아주며 머리를 쓰다듬으며 볼에 뽀뽀해주었습니다. 훗날 벤자민은 “내가 세계적인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그 뽀뽀 때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격려의 힘을 알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얼마 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돌고래를 훈련하는 조련사들은 돌고래를 훈련할 때 고래와 신뢰감을 형성하고, 고래가 잘못된 것은 못 본 척하며

빨리 다른 행동으로 유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잘못된 행동에 쓰일 에너지를 다른 곳으로 전환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조련사가 돌고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칭찬하며 격려할 때, 고래는 인간의 마음을 놀랍도록 정확히 이해하고 훈련을 통해 묘기를 보여줍니다. 격려의 힘을 보여 줍니다. 존 맥스웰과 짐 도넨은 ‘영향력’이란 책에서 격려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 책에서 사람의 인내력 측정실험을 소개합니다. 얼음이 담긴 양동이 속에서 사람이 맨발로 얼마나 오래 서서 버틸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요인을 작용시키면 보통의 경우보다 두 배나 오래 버틸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한 가지 요인이 “격려”입니다. 도움과 격려를 주는 사람과 함께 한 실험 대상자는 그렇지 않는 실험 대상자보다 고통을 훨씬 오래 참을 수 있었습니다. 존 맥스웰은 “격려를 받은 사람은 불가능에 도전하고 커다란 역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동화 작가 안데르센의 천재성은 어머니의 격려로 개발이 되었고, 아인슈타인의 잠자는 창의성은 어머니의 격려로 깨어났다고 합니다. 세계적 고고학자 솔리만 박사는 아버지의 격려로 고고학자가 되어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했고, ‘왈츠의 왕’으로 불리는 요한 슈트라우스도 아버지의 격려로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격려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격려하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인정받기를 원치 않고 감사히 여김 받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인정해 주고, 신뢰해 주고, 도움을 주는 이 세 가지 격려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격려로 인생이 바꾸어집니다. 격려로 행복을 가꿀 수 있습니다. 격려를 주고 받는 삶에 참 행복이 있습니다.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효, 박기호, 방지자,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이 사 장 : 존김 고문번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드,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사랑과 섬김으로 세상을 밝히는 World Share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당신의 일부를 나누면 한 아이의 인생 전부가 바뀝니다.

World share USA는 국제 구호 NGO 단체입니다. 월드쉐어 USA는 UN과 함께합니다. 월드쉐어 USA는 질병과 기아에서 허덕이는 고아와 절대 빈곤 아동들을 사랑으로 후원합니다.

한 달에 30불, 35불 소액 회원 가입으로 생명을 살리는 축복을 누리세요!



World Share USA
3123 W 8th St, #206, LA CA 90005

후원 문의: 강태광 목사 T.(323)578-7933, (213)318-5227

PCUSA, '8분 46초 침묵' 속 온라인 총회 폐회

미국장로교(PCUSA)가 백인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흑인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8분 46초 동안 침묵의 시간을 가지며 제 224차 총회를 폐회했다.

'침묵의 순간(Moment of silence)'은 5월 25일, 미니애폴리스 경찰관들에 의해 8분 46초간 목이 짓눌려 사망한 플로이드를 애도하기 위해 미국 전역에서 같은 시간 동안 침묵하는 추모 의식을 말한다.

1일 크리스천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추모 의식은 지난달 27일 열린 PCUSA 총회의 본회의 폐회 직전에 진행됐다.

추모에 앞서, 허버트 J. 넬슨(Herbert J. Nelson) 총회 서기는 인종차별로 희생당했던 흑인 미국인 여성들을 애도하며, 교단이 상처받은 자들을 회복시키며 살 것을 기도로써 촉구했다.

엘로나 슈와트(Elona Street-



켄터키주 루이스빌에 위치한 PCUSA 교단본부 ©PCUSA

Stewart)총회 공동의장은 추모 의식이 "단지 조지 플로이드의 비극적인 살인만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제도적 인종주의와

백인 우월주의로 인해 흑인과 인디언, 유색 인종이 겪은 모든 부당한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튜어트는 침묵의 순간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교회와 교단에서 형제자매를 경홀히 대한(marginalizing)것을 기억하고 회개

할 것'을 촉구했다.

그녀는 이어 "우리의 자원과 특권을 사용하여 거리로나 공동체, 도시, 민족, 나라와 전 세계에 교회의 위대한 존재의 목적을 이루며 살 것을 결단하자"고 말했다.

PCUSA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을 우려해, 올해 교단 역사상 처음 온라인으로만 총회를 열었으며, 교단 지도부 선거, 예산, 특별위원회 활동 등 주요 안건만을 다뤘다.

CP에 따르면 교단 일각에서는 총회가 일정이 축소되었는데도 의도적으로 '사회 정의 이슈들(social justice issues)'을 다루려 한다는 우려적인 시각도 있었다.

이에 대해 넬슨 총서기는 지난 4월, "우리는 항상 정의를 지지(pro-justice)해왔다"며 "우리가 장로교 인임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 매우 기습 아파할(poignant)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진 기자

美 연방대법 "루이지애나 낙태 제한은 위헌" 백악관은 반발

미 연방대법원은 29일 낙태진료소 수와 낙태 시술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한 '루이지애나주 낙태방지법'을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루이지애나에서 제정된 '안전하지 못한 낙태방지법'은 낙태진료소를 반경 약 48km내 한 곳에만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낙태 시술의 사는 반경 48km 이내 병원에 환자 입원 특권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환자 입원 특권'은 인근 병원에 환자를 이송해 입원시킬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당시 공화당 의원들은 여성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이 법의 제정을 주도했다.

그러나 낙태옹호론자들은 낙태를 시술할 수 있는 의사의 자격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여성의 낙태접근권을 제한한다며 최근 연방대법원에 소를 제기했고, 이에 연방대법원은 이날 5대 4로 '안전하지 못한 낙태방지법' 폐지를 결정했다. 진보 성향 4명, 보수 성향 5명으로 구성된 9명의 대법관의 의견이 갈렸으나,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폐지하자는 쪽에 손을 들어주었다.

보수 성향의 클레런스 토마스 대



미국 연방 대법원, 연방대법원은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이 위법하다고 제기한 트럼프 행정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pixabay

백악관, "주정부의 자주적 특권 침해"

법관은 이번 판결에 대하여 "근거 없는 낙태 법리를 영구화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대법관 등은 "루이지애나 법이 낙태를 원하는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특권을 인정 받은 의사만 시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의사들의 능숙함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준다"며 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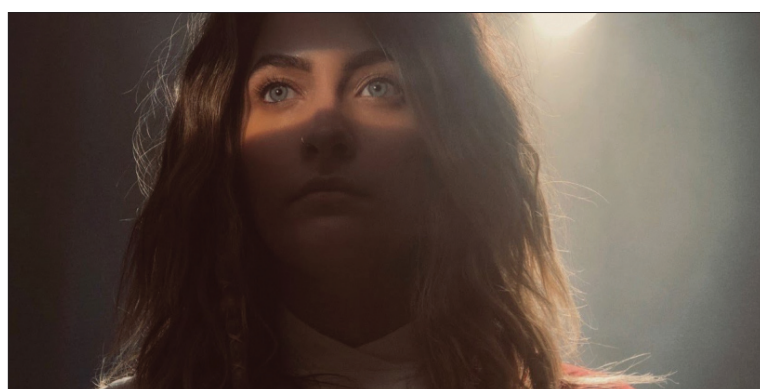
조시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루이지애나 법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백악관은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케일리 맥커내니 백악관 대변인은 "대법원은 엄마들의 건강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생명을 동시에 평가절하했다"며 "선출직이 아닌 대법관들이 자신의 정책 선호에 따라 낙태에 찬성해 주정부의 자주적 특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강해진 기자

"예수님을 레즈비언으로 표현" 할리우드 영화 신성모독 논란



마이클 잭슨의 딸 패리스 잭슨이 예수 그리스도 역할로 등장한 독립영화 '해빗'

마이클 잭슨의 딸 패리스 잭슨(22)이 독립영화 '해빗'(Habit)에서 예수 그리스도 역할로 등장해 신성모독 논란에 휩싸였다고 1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 폭스뉴스 등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 영화 '해빗'의 배급을 막자는 청원이 올라와 1일 오전까지 27만 명이 서명했다. '100만 명의 엄마들'이라는 보수 단체가 별도로 진행한 개봉 반대 청원에도 7만 명이 서명했다.

개봉을 반대한 청원인은 "할리우드가 예수 그리스도를 레즈비언 여성으로 묘사한 분노스럽고 신성모독적인 영화를 개봉할 예정"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100만명의 엄마들'도 영화 '해빗'이 예수를 성적으로 왜곡하면서 기독교와 신자들을 조롱했다고 성토했다.

올해 초 공개된 이 영화의 공식 홍보물에는 따르면, 예수를 숭배하는

똑똑한 소녀가 뒷골목 마약 거래에 얽혔다가 탈출하기 위해 수녀로 위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예수가 레즈비언 등 성소수자로 그려진다는 언급은 없다.

하지만 영화의 실제 내용을 떠나 커밍아웃한 동성애자인 패리스 잭슨이 예수 역할을 맡았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해빗' 반대 청원에 기독교를 믿는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몰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매체는 보도했다.

미국 '기독교 영화&TV위원회' 대표 테드 베어는 "영화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라며 "영화를 통해 어린이를 비롯한 청소년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영화에 어떠한 목적과 이유가 있든 실제로는 예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화 '해빗'은 촬영을 마치고 지난 4월부터 후반 제작 작업에 들어갔지만, 아직 배급사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김근혜 기자

통증탈출 양자칩

양자파동 에너지 칩

- 양자에너지(16번 공정을 거친 토션이라는 제5의 힘, 토션필드 토션장, 회전 전자파, 스핀파)가 30cm이상 방출
- 생체에너지 활성화, 최상의 컨디션 유지.
- 적혈구를 깨끗하게 하여 활동성을 강하게 하고 신속하게 젖산 배출.
- 12경락 365경혈 신속하게 풀어줌.
- 침시술 이상의 효과

▶ **신체 어느 곳이든 통증에 사용합니다.**

천연 자연물질과 양자에너지를 융합시켜 자연 에너지를 방출하는 획기적인 제품으로 팔, 다리, 허리, 어깨, 목 등 통증이 있는 곳에 붙이는 반영구적 칩입니다.

▶면역력 강화

자연 에너지를 인체에서 공명, 흡수함으로써 활발한 기혈순환으로 신진대사가 원활하므로 체온이 약 0.5~1℃ 상승되어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양자 깔창

양자 파동 에너지 쿠션 족초액 발매트

▶ **추천인**
당뇨분들의 발보호, 평발인 분, 뒤꿈치 갈라진 분들, 족막염성 통증, 발에 쥐가 자주 나는 분들, 발목, 발바닥, 발등 백색 건선 피부, 족부 혈행 원활, 직립형 활동 직업, 발 관련 질환자, 평안하고 아늑한 보행, 피로를 현격하게 감소

▶ **원리**
걸을 때 3배의 하중에 무릎과 허리에 부담을 주는데 제품 착용시 무거운 체중을 골고루 분산시켜 허리, 무릎 부담을 현저히 줄여줍니다.

▶ **제품의 특징과 효능 및 효과**

- 1) 족초액 : 체중 분산, 구름을 걷는 느낌, 마사지 효과
- 2) 은 : 항균, 항취 효과
- 3) 원적외선 방출 분말 : 신체의 모든 부분을 원활하게 함
- 4) EM 유용 미생물 : 굳은 각질을 제거해서 발을 부드럽게 함.
- 5) 양자 에너지 처리 : 온 몸에 활력이 넘친다.
- 6) 제품의 특징 : 신체의 여러 흐름을 빠르고 원활하게 함.

※사용시간만큼 쿠션감은 약해질 수 있으나 미생물 번식, 분해, 원적외선 방출, 양자파동 에너지는 반영구적으로 나옵니다.

Z-UP전동거꾸리 LOLC Inc.

For the Spirit & Body

Tel. (213)703-0240
147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웨스턴길, 1가와 2가 사이)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2020학년도 여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수있습니다.

본교 지원시 특전

- 1) RPCA 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 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2020 여름학기 강의시간표

요일	시간	과목	교수
Mon	PM 7:00 - 9:00	설교학	Dr. Jong Kim
Tue	PM 7:00 - 9:00	로마서	Dr. James Lee
Wed	PM 8:30- 10:30	사무엘상,하	Dr. Timothy Song
Thu	PM 7:00 - 9:00	현대신학 II	Dr. David Lee
Fri	PM 8:30- 10:30	현대교회사	Dr. Daniel Min
Sat	PM 7:00 - 9:00	청교도 신학과 신앙	Dr. Elijah Kim
Sun	PM 7:00 - 9:00	조직신학 I	Dr. Elijah Kim

*청강을 원하시는 분들은 각 과목당 \$100씩으로 청강하실수있습니다.

- 신학학사과정 (B.Th) | 128 학점
- 목회학석사과정 (M.Div) | 96 학점
- 목회학박사,교육학박사,신학박사,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학위과정)*

개강일자 : 2020년 6월 22일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276 S. Rampart Blvd. Los Angeles, CA 90057 | TEL:213-272-6031

‘교회를 세계로’에서 ‘세계를 교회로’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교회 밖’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교입니다. 예배 중에 선포되는 복음은 지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야 하는 당위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하는 여러 사역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의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가끔 타 교회 성도로부터 자신이 다니는 교회는 선교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직 자립이 되지 않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아직’이라는 시간적 변명은 있을 수 있겠지만, 선교에 관심이 없는 교회는 교회라 할 수 없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본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했습니다. 콘텍스트는 항상 ‘세계’였습니다.

전례를 찾기 힘든 팬데믹이라는 코로나 사태는 우리가 미국 남가주 얼바인이라는 특정한 지역이나 공간에 있는 교회일 뿐만 아니라 ‘세계’라는 콘텍스트에서 같은 페이지를 넘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모 나라는 미국에 10년, 20년은 뒤졌다’는 식으로 말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같은 선상에 공평하게 놓여있고 최고를 자랑하는 미국은 더욱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선교지역 기도제목이 얼바인 베델교회 기도제목과 같아졌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문화와 민족이라는 지역성을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은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해 교회를 ‘세계화’ 하셨듯, 이번에는 팬데믹을 통해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가르쳐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 하나 배우는 중요한 교훈은 자가격리로 인한 온라인이라는 대체 처방이 교회의 지역성을 탈피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물리적 현장의 중요성을 유지하면서도 교회가 지닌 메시지의 영향력은 한 번의 클릭으로 세계 어느 지역에도 도달할 수 있다는 새로운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 번의 클릭으로 세계가 교회로 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로 나아가는 교회에서 이제는, 세계를 교회로 끌어오는 선교의 전환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를 위한 캠페인 문구 중에 “지역사회는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닙니다.”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만 국한된 존재가 아니라, 더 광범위한 지역과 사회의 한 일원으로 그 역할을 확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얼바인에 산다고 얼바인에서만 할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가주와 미국, 나아가 세계를 위해 기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제는 교회의 역할과 영향력을 대변하는데 참으로 시의 적절하다는 생각입니다.

교회는 우선 지역성이 뚜렷합니다. 옛날에는 그 지역의 명칭으로 교회 이름을 많이 지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일곱 교회들도 모두 지역 이름을 본 딴 것입니다. 교회는 세워진 그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우주적 성격상 교회의 사명은 그 지역에만 머물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단순히 교회가 세워져 있는 지역에서 벗어나 그 영향력이 전 세계로 뻗어가야 합니다.

천국시민권자의 기도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니, 진짜 이 땅에서는 “나그네”(alien)와 “행인”(strangers)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의 시민권이 없어도 확실한 천국시민권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광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지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은 “슬픔과 고난의 왕”(the King of sorrow and suffering) “치유의 왕”(the King of healing) 그리고 “대속의 왕”(the King of redeeming)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은 이웃을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고, 치유의 백성이며, 아울러 이웃의 짐을 짊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제국”이라고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제국이 의미하는 바를 성경의 저자들이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기록하던 사도들이나 선지자는 예리한 문명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그리스도의 나라가 제국의 특성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물리적인 강제력(coercion)이나 폭력(violence)으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워지고 유지되고 확장되는 나라임을 알았습니다.

시민권 검사관이 물었습니다. “미국을 위하여 전쟁에 나가서 싸우시겠습니까?” 제가 대답하였습니다. “싸울 마음이야 있지만, 제가 목사입니다. 다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검사관의 생각에 아마 제가 나아가 들어 전쟁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늘 형식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시민권을 받은 지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다.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시민권은 상실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아쉽게 바라봅니다. 대신 책장 서랍 한 편의 독수리 여권을 보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때가 되면 다시 이중 시민권, 즉 한국 시민권과 미국 시민권을 같이 가지리라 생각합니다.

아내는 국적으로 말하면 공중에 떠 있습니다. 아무데나 거의 거침없이 들어갈 수 있는 훌륭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나, 대한민국에서도 호적은 말소가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영주권만 가지고 있으니, 미국의 정치지도자를 선출할 권한도 없습니다. 아내는 오로지 천국 시민권만 가지고 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일종의 제국입니다. 그러나 독특합니다. 자유 특히 종교의 자유를 위하여 독립한 나라입니다. 1776년 7월 4일에 독립을 선포한 이 나라는 250년 동안 꾸준히 발전하여 지금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자유기념주일인 2020년 6월 28일 한 교회에서 연설하였습니다. “미국은 자유에 기반을 두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의 기초는 신앙입니다.” 우리의 기도제목은 이 강력한 나라가 억압적인 제국이 아니라, 세계 여러 민족의 자유를 진작시키는 섬김의 나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박진우 목사
첼러한인제일침례교회 담임

“1.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 3.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도 4.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1-6)

대적에 쫓기어 언제 죽을 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목자이시길래 오늘 말씀 1절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는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는”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두가지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먼저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막과 같이 황량하고 목마르던 다윗의 삶을 편안하고 시원한 물가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에 유념해야 합니다. 그 지역의 물가는 광야나 사막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속에 고난과 어려움을 사라지게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길로 인도하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의의 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된 길에 벗어난 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난 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명을 지키기 위해 다윗의 영혼을 깨우쳐서 죄된 길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푸른풀밭, 쉼만한 물가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푸른 풀밭과 쉼만한 물가, 그리고 의의 길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까? 십자가가 떠오르시지 않으십니까? 푸른 풀밭, 쉼만한 물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의의 길은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를 한번에 해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십자가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길,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 사람에게 인정받는 길, 건강하게 오래사는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로 인도하시겠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이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두번째로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두가지 상황속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먼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시

니다. 4절입니다. 여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사망의 골짜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이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는 앞에서 말씀드린 광야와 사막보다 더욱 더 힘든 고난을 의미합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심시켜주고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원수의 위협속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5절입니다. 우리의 삶에 원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가 무엇입니까? 그 원수는 우리를 붙들고 넘어뜨리는 과거의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재정적인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상처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변화되지 않아 두려움으로 가득한 미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사로잡는 우리의 죄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수들은 절대 온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원수들을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원수들 앞에서 당신을 위해 손수 잔치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머리에 기름을 넘치도록 부음을 받는 귀한 손

님으로 대접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원수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정죄하여 두려움을 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용납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이런 좋은 목자되심을 경험했던 다윗은 오늘 말씀 6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목자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집에 거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기서 “반드시”가 중요합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속에서도 어떤 모습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인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참된 생명의 길이 십자가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며, 어떤 상황과 원수의 공격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CD Printing
CD전문 주님미디어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그밖의 다양한 컨텐츠 제작
전도용 볼티슈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Han's piano tuning
피아노조율
James Han
Sale Used Piano
Professional Tuning
Repair & Moving
godfist91@gmail.com
Tel : 562-822-6778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프로 미용인도 OK)
회비 : 월 \$10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걱정 끝!
최첨단 3D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임플란트
올림픽 치과 213.385.4011
OLYMPIC DENTAL CENTER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이동희 원장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손가락 발가락 마디관절
루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매끼는 숙변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교통사고 전문병원
영선한의의원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아)

■ 간 중

이영표 “꿈이 이뤄졌는데 행복하지 못했다”

전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였던 이영표 선수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K리그에 입단, 이후 월드컵을 거쳐 네덜란드의 명문 팀에 진출했다. 이후 UEFA 챔피언스리그 4강 등을 이끌고 유럽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명문 팀 토트넘과 독일 분데스리가의 도르트문트에서 활약했다. 그는 기복 없이 안정되고 수준급의 플레이를 보여주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다. 특히 이영표 선수는 시합 후 하나님께 기도하는 등 크리스천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 과거 예능정년교회에서 했던 간증이 여전히 많은 은혜를 주고 있다.

먼저 이영표 선수는 세상의 욕심이 얼마나 허망한가에 대해서 간증했다. 그는 국가대표가 되기 전에는 국가대표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벤치 옆에만이라도 앉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바람대로 국가대표가 되어 벤치에 앉을 수 있었다. 그런데 벤치에 앉아 있으면 카메라가 자신을 한 번도 안 비춰준다는 것을 알고 교체 멤버로라도 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후에 그는 자신의 바람대로 교체 멤버로 뛸 수 있었다. 그런데 교체 멤버로 뛰다가 이번에는 주전이 되지 않으면 주목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주전이 되면 더는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그는 주전이 됐다. 그런데 주전이 되어도 잘하지 못하면 욕을 먹게 되는 상황을 보며 잘해서 칭찬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이후 잘 하는 것도 한번 만 잘 해서는 안되고 계속 잘해야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잘 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이기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성공 자체가 목적이 되면서 높이 올라가고 많이 얻을수록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경험했다. 그는 축구를 하면서 가장 두려웠을 때가 최고의 자리인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때였다고 한다. 어릴 때부터 최고의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들과 경기하는 것이 꿈이었는데 그 자리에 갔을 때 바로 그때가 자신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고백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평가하니 너무 부담됐던 것이다. 심지어는 자신이 타고 가는 버스가 굴러서 팔이 부러져 두 달만 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사람들이 너무나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성공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또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이영표 ©이영표 SNS

자신을 바라보는 평가가 두려웠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지금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곳에서 경기를 하고 최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왜 축구가 행복하지 않은지 이유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즐기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강해서 이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됐다.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비판을 받을까 봐 두려움이 컸다는 것이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목표와 꿈을 이루는 순간 그것은 즉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지만 그것은 또한 엄청난 부담감으로 돌아온다고 했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면 또 다른 목표가 생긴다. 더 높은 곳 더 높은 목표가 끝이 없이 생긴다. 그는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환상은 깨지고 성공의 노예가 된 채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경험했다고 털어놨다.

‘왜 내가 성공해야 하지? 내가 꿈을 이루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가진 자만이 자신의 꿈을 이룬 후에 허무하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해매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성공과 꿈을 이루는 것만이 목적이 되면 그것을 이루는 순간 허무함과 방향감각을 잃은 채 쓰러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지 만 그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또 영원한 것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의미가 있으니 이것을 청년들이 꼭 명심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영표 선수는 이어서 자신이 축구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모습을 소개했다. 그는 기복 없는 플레이로 유명하다. 그가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린 시절부터의 꾸준한 연습 때문이었다. 그가 어릴 때부터 열심히 노력할 수 있었던 것은 축구가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축구를 잘하면 축구가 더 재미있다는 것을 느끼며 잘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했다. 선수들과 함께 오전, 오후에 운동하고 저녁에 모두가 쉬 때 드리블 연습을 따로 했다고 한다. 그렇게 연습하니 드리블은 관찮아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는 내 공도 아니고 상대 공도 아닌 가운데 떨어지는 공을 자신이 다 가져가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는 어떻게 하면 내가 공을 많이 차지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줄넘기가 좋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줄넘기를 매일 했다. 처음에는 2단 뛰기를 하루에 1천개씩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1천 개를 한 번에 할 수가 없어서 1백 개씩 열 번으로 나눠서 했다. 이렇게 2년을 하니 2단 뛰기 1천 번을 한 번에 할 수 있

게 됐다. 2단 뛰기 1천 개를 한 번에 할 수 있을 때까지 줄이 두 번 끊어졌었다고 한다. 그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큰 기쁨이 있었다. 그는 “노력은 고통이다. 그 고통이 계속해서 지나가면 고통에 익숙해지면서 고통이 쾌감이 되기 시작한다. 고통을 즐기고 싶은 분노가 일어난다. 실제로 고통이 기쁨이 되기 시작한다. 거기까지 갈 때는 정말 힘들데 노력의 마지막에 오면 엄청난 쾌감이 온다”며 열심히 노력했다고 한다. 대학교에 와서는 크로스과 슈팅 연습을 매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영표 선수에게도 크나큰 고비의 순간이 있었다. 건국대학교에서 4학년이 되었는데 그는 팀의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가 되지 못했다. 팀에는 6명의 올림픽 국가대표가 있었다. 6명중 5명은 친구이고 1명은 후배였다. 어느날 이영표 선수는 겨울에 다른 선수들은 다 쉬고 있을 때 혼자만 나와서 땀을 뻘뻘 흘리며 연습을 하고 있었다. 그때 문득 드는 생각이 ‘예전에 어른들이 나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구나. 그냥 열심히 하게 하는 속임수일뿐이지. 운동은 뭘 애들만 되는구나. 안될 애들은 안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그런 마음으로 흠박대에 누워 하늘에 떠 있는 보름달을 보는데 자신의 마음 속

깊은 어딘가에서 억울함과 같은 눈물이 솟구쳤다. ‘내가 10년이 넘도록 노력했는데 이게 뭐지. 초 3년, 중, 고등학교 6년, 대학교 4년, 13년을 여기에 다 바쳤는데. 난 뭐지’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 순간 ‘내가 속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눈물이 펄펄 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4주 있다가 올림픽 대표팀에 갈 수 있는 테스트가 있었다. 이영표 선수는 1주 만에 테스트에 합격해서 정식 올림픽 대표팀이 됐다. 그리고 3개월 있다가 국가대표가 됐다. 국가대표 첫 경기에서 후반전이 시작하자마자 교체해서 들어갔고 1999년도부터 은퇴하는 2011년까지 단 한 번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본 적이 없었다. 그는 ‘노력이 우리를 속이는구나. 결국 운이고 결국 재능이구나. 아무리 해도 안될 애는 안된다’고 생각했는데 노력하면 정말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히려 노력하면 안 된다는 말이 우리를 속이는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해도 나보다 잘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포기하고 싶어지는데 그런 고민이 드는 것은 그 길을 제대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다.

이영표 선수는 자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앞에 나타나 달라고 기도할 정도로 신앙이 없었다고 고백했다. 그는 세상에 어떤 종교든 상관없이 종교로부터 위로를 받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불신자였다. 게다가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으로 보이고 자기들만 맞다고 하는 것 같아서 싫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교회다니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서로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신앙을 갖기가 힘들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의심도 많았다는 것을 예로 들며 하나님이 물건을 스스로 움직이게 하시거나 자신 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면 믿겠다고 기도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이 사실이라면 자신의 마음 속에 가득한 의심을 바꿔보시라고 기도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나서부터 자신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고 성경공부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는 하나님을 본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다는 것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한다. 그는 진짜 믿음은 눈으로 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임을 배우면서 지금도 하나님을 신앙을 배우고 있다며 간증을 마쳤다.

조성호 기자

헤어칼라 전문점

헤어칼라

\$40 up **\$20** up

단, 칼라만 하시면 \$40

매직스레이트

\$120 up

프로페셔널-웰라 제품만 사용합니다

광고에 사용한 모델의 헤어 칼라는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웰라 제품으로 칼라만 실제 사진들입니다.

WELLA PROFESSIONAL SEBASTIAN

앞서가는 멋쟁이들이 찾는 곳

mystylist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에서
컷트하시는 모든 분께 헤어 칼라를 파격적인 가격에 해드립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칼라 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 영업시간: 월요일 부터 토요일 까지 10:00 AM ~ 8:00 PM

Tel: 213-739-1022



교회 봉사 역할의 조화



서울성교회 목사 장재효

로마서 12:1-12

장재효 목사의 은혜의 샘

(본문) 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3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중략)**...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8 혹은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9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11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2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당시 로마제국은 세계를 장악해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부하고 강한 국가를 형성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 했었습니다. 그런 로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에 바울사도께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영적인 소망에 애타는 권면의 내용이 오늘날 본문 말씀입니다.

1. 영적예배: 사도바울의 애타는 권면

1절에 사도바울은 구원 얻은 성도들을 형제라고 부르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하노니"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명령한다"는 것과 "호소한다"는 두 가지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 단어를 통해 단호한 명령과 애타는 호소를 동시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도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를 얼마나 기대 가운데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땅 위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의 목자들이 양떼를 두고 그 영혼이 거꾸로 천국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를 기대하고 소원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에 이렇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애타는 마음으로 간청하는 부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청하는 명령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속죄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자신의 죄로 대신 죽을 양을 준비하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는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뽑아서 성막 휘장에 우슬초로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 제사를 드린 자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히 속죄 받을 때까지 임시로 용서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의 제물은 다 죽습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양, 소, 염소, 비둘기까지도 다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되어 끝나 버립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 그 보혈의 공로로 죄를 용서받았다고 해서 내 몸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즉, 죄가 용서된 후 성령을 파송해 주셔서 성령이 내게 인치시고 나를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시는 과정에 내가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육체의 남은 때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영적인 소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이 세상 조건에 빠져 얽매어 살지 말고 영적인 소망과 그 성과를 목적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이는 헬라어로 '로기케'라는 말인데, 그 어원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생활이 영적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예배는 우리의 생활 모든 분야에서 내가 얻은 구원의 영적 소망의 신령한 기쁨을 주변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2. 성도의 삶의 자세: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2절에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사는 자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유행시키는 모든 일들을 절대대로 흉내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확실하게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게 바뀌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뜻을 분별하여 행할 때에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관심도 더욱 깊어질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잘 다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대접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었다면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와 관심, 대접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3-5절을 보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성도로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 몸을 이루는 것은 성도들입니다. 성도라고 함은 성령을 받아 구원 받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성령 받은 성도들만이 머리되신 예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몸을 이루는 지체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운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직분을 받아 끼어있다고 하면 그 부분은 머리되신 예수님과 통하지를 않습니다. 결국 그 부분은 죽어있는 부분, 썩어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조직을 신중히 세워야 합니다. 모든 조직은 영적 예배를 위하여 교회가 이 시대적 사명을 받들고 영적 예배로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 조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로만 조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 다양한 은사로 세워져 가는 교회

6-9절에 교회 구성원들은 제각기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 합니다. 교회는 성령으로 한 몸을 이루어야 하지만 그 각각의 은사는 다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영적 기술과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을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하게도 하시고, 또 맡기신 양떼가 병이 나서 고통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목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므로 즉석에서 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영적체질신앙이 있어야 하지만, 또한 각자가 받은 은사는 다양해야 합니다.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또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으면 기도해 줘서 병 나게도 해야 합니다. 이런 다양한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로 교회가 조직을 이루게 되면 그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 구령성과가 더 넘치는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11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같은 성령 받아 구원을 얻은 형제, 자매는 영적체질신앙으로 함께 교제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인 오직 하늘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사랑하면서 주를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차간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분이 원하시는 성과를 위하여 이해하고 협동하는 일에 합심 전력하자는 것

입니다. 이는 나의 입장,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주되신 예수님의 소원을 더 잘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피차 자기 입장을 제쳐놓고 예수님의 입장을 따라 영적인 성과와 또 그 영광스러운 결실의 소망을 목적으로 합심전력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란 중에 참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고 마귀소굴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면서 더 잘 믿으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들은 더 대적하고 훼방하며 여러 모양으로 핍박하고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음이 구원의 확산도 없고, 교회만 들락거릴 뿐이지 영적인 것에 대하여 전혀 소망 없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사탄 마귀가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가치도 모르고 소망도 없는 자이니 언제라도 사탄이 이용해서 교회 가운데 환란풍파를 일으킬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령 받은 사람은 원수마귀들로부터 중상모략과 행패와 핍박과 환란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에 그것을 맞서 내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나와 함께하시는 성령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그 기도 응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마주대하여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내게로 향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마주보고 사는 것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과 마주보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고 힘써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잘못 살았던 것이 생각하면 철저히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생각, 말, 행동하는 모든 것이 영적 예배를 위한 생활이 되도록 새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선교 설교			
T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T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 목요일 낮 12시 / 토요일 오전 7시 /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40 라디오 코리아 /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 AM1310 기본소리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기독교일보	설교 /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 온라인 칼럼 설교	화요일 오후 7시30분 / 금요일 오후 2시30분 /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 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동, 통합) 부총회장 당선 "한국교회 발전을 위해 크게 쓰임받길 기도합니다."

21세기 목회 뉴 트ренд

교회 내분과 반기독교 세력의 공격으로 급속하게 파괴되어가는 교회 생태계 현대 사상과 문화의 배후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의 전략과 음모의 실체 21세기 시대 흐름에 대한 입체적 분석과 창조적 대안을 제시하는 한국교회 미래 목회 대안 보고서!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는 한국교회, 이제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 네트워크로 나아가라! 이 한 권의 책을 읽으면 미래에 대한 목회 예측과 대안, 실제적인 목회 방안을 알 수 있다.

소강석 목사
339면 / 13,000원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 하나님의 청지기 40여 년 이야기 -

'말씀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는 청지기 사상은 '말씀대로 살면서 말씀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킴으로써 오는 고난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와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부지런히 전도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한다'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 노력해온 전주동신교회와 신철호 목사의 이야기다. 교회 개혁을 꿈꾸는 신학생, 목회자, 성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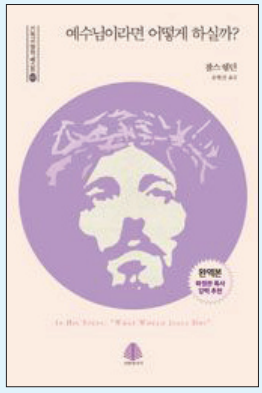
신정호 목사
380면 / 15,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쿤란, 쿤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이화장길 6 ☎ 02-747-1004 쿤란출판사

크리스찬북뉴스 추천도서 예수님을 따르는 흔적이 있는가

그리스도인,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날 성도들, 자신의 행복 위해 사는 것 같아 주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 되어야 내가 먼저 주님으로 인해, 변화 노래할 수 있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찰스 셸던 | 손현선 역 선한책지기 | 432쪽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들이 전하는 예수의 뜻을 실천하는 방법!

누구를 닮을까? 누구를 따를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고민할 것도 못 되어야 하지만 실제 우리는 이미 주님을 닮지도 따르지도 않는 삶을 살고 있다. 그 까닭에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기독교 신앙 소설의 고전으로 불리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손에 잡게 되었다. 소문으로만 익히 알고 있던 책이었는데, 이렇게 완역본을 읽게 된 것은 처음이다.

1896년 출판되자마자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여러 나라의 언어로도 번역되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큰 도전을 주고 있다.

저자인 찰스 셸던은 이 이야기를 설교 식으로 섬기는 교회에서 선포하게 됐고, 이것이 출판사에 연재된 다음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다.

저자는 소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잃어버린 교회를 아파하며 본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될 것을 그리고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지 않는 성도를 회개하며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길 설득하고 있다.

책을 보면서 제일 찢리게 된 것은 성도가 거듭나고 교회가 새로워지기 전에, 그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먼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다.

청중에게 필요한 위로와 감동과 도전을 주고, 편안하고 쉽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수 있다.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자신의 안위를 살피며 무난하게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감각한 성도가 아니고, 건물만 화려한 교회도 아니다. 교회의 가치는 크기와 비싼 재료와 멋진 프로그램으로 결정되는게 아니다.

교회 안에 자본력이 있고 유능하고 인기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다. 교회가 사회가 요구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빛이 나는 것도 아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백화점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다 들어주기보다, 오히려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관심과 목적을 두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임재와 주님의 영이 머무는 교회가 되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는 한 늘 교회는 사회의 필요와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 같다.

성도 또한 교회를 다니는 여러 이

유가 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살이에 지쳐 외로워서 오기도 하고, 자신의 미래를 잘 세우기 위한 배우자를 찾으러 오기도 한다.

교회에 오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니 유력한 인물들과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오기도 한다. 눈물 많은 세상에서 위로받고 싶고 그저 쉬고 싶어서 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성도는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다니는 곳이 아니다. 물론 성도는 교회에서 위로와 위로와 평안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성도는 복음과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주인이 바뀐 사람이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꿈꾸고 기도하고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살았지만, 이제 주님이 꿈꾸고 기도하고 원하는 바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다.

성도는 이런 영혼의 변화와 가치관의 혁명을 겪은 사람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을 더 있어 보이게 하는 장신구가 아니다. 오히려 복음은 우리의 장신구를 제거하게 하고 믿음의 옷을 입게 한다.

성도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에 나오는 성도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사는 것 같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본질을 잃은 것 같다. 주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높이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길거리에 종이조각을 줍는 할머니가 들어오기에는 너무 문턱이 높아서 들어오지 못하는 교회가 되었다.

지하철과 길거리에서 잠을 청하는 천사들이 잠시 들어와 깨끗하게 씻고 밥이라도 먹고 쉬고 갈 수 없는 교회가 되었다. 사회가 그 정도로 무서워졌다는 것도 인정하지만, 교회도 그렇게 변질됐다.

이 모든 것에 변화를 주고 성도를 깨울 수 있는 것은 목회자로부터 시작된다. 필자에게 다른 것보다 그것이 큰 절망이었고 무거운 부담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목회자이고 성도지만 쫓달려 살고 싶지 않고, 의도적으로 낮아지고 희생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돈도 많이 벌어서 잘 쓰고 싶고, 이왕 예수 믿은 거 멋있게 믿고 싶고 넉넉하고 여유있게 살고 싶다.

목회자지만 나에게 속물적인 모습을 보게 되고, 자본주의에 잘 적응된 모습을 본다. 좀 더 큰 차 타고 싶고 좀 더 넓은 집에 살고 싶다.

내가 행복해야 남들에게도 행복을 줄 수 있고 내가 있어야 남에게도 베풀 수 있으니, 내 것을 먼저 채워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든다.

말고 있는 사역도 도전하기보다, 부교역자나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지금 수준만 유지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목회자가 이러니 설교도 영적 능력과 감화가 희미하고, 기도도 무기력하다. 교회에도 선한 은혜와 진리의 통로가 되기보다, 있어도 없어도 되는 정도의 사람이다.

섬기는 부서에서는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하는데, 영적 도전을 주지 못하고 있다. 목회자가 이러니 변화와 회복과 능력이 나타나질 않는다. 세속적인 목회는 이런 것이라는 가리고 싶은 증거를 보여주는 것 같다.

책에서 나오는 처음 변화는 목회자이고 그의 설교다. 헨리 맥스웰은 주옥같은 표현과 세련된 문장으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귀감이 되는 설교를 하였다.

그러나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난 뒤, 그의 설교는 평범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영혼을 깨우고 듣는 이마다 예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게 하는 설교였다.

신학이 탁월하고 언어가 세련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하게 된 것이다.

목회자가 이렇게 먼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제자로 살게 되니, 설교가 주님의 말씀이 되고 기도가 신령한 언어가 된다.

그러나 교회가 주님의 임재하셔서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는 곳이 되고, 성도는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제자로 살기로 다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오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목회자로서 주님처럼 살려고 하기보다 그냥 목회자로 사는 것에 길들여져 있지 않는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떠한가? 힘들어도 생명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며 좁은 길 가기를 힘쓰기보다, 자본주의에 물들어 편하게 넓은 길 가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 같다.

성도로서 주님의 흔적이 없는 것에 아파하기보다, 나의 흔적을 남기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 예수를 따르기로 선택하고 결단하면 열매가 나타나야 하는데 열매 없이 오랜 무성한 우리의 모습을 본다.

책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고,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는지 은혜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

내가 먼저 주님으로 인해 변화를 노래할 수 있기를 소원한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기적이고 고집스런 우리를 보게 된다. 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그대로인지 돌아보게 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맞게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될 때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예수의 흔적이 새겨지게 된다.

방영민 목사 서현교회 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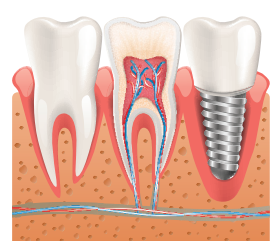
출처:크리스찬북뉴스



영화 <예수의 생애> 한 장면. ©모팩(MOPAC) 제공

이제는 안심하자! 치아 고민. 걱정 끝!

치아는 하나뿐이니까! 소중한 내 치아를 위한 '치과 선택 기준'은? 바른 고집, 정직한 올림픽 치과에서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임플란트 치과 체크 사항은?

- ☑ 원장님이 초진부터 수술, 사후관리까지 진료하는가?
- ☑ 임플란트 재료는 검증 받은 제품인가, 보증서가 있는가?
- ☑ 정확한 진단을 위해,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가?
- ☑ 경험이 풍부하고, 수준 높은 다양한 수술 사례가 있는가?
- ☑ 엄격한 소독과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CT 진단과 컴퓨터 시스템으로 제작한 가이드 임플란트

이동희 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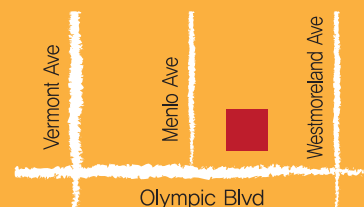
고려대학교 임상 치의학 대학원 석사
Korea Tweed Orthodontic 한국 교정 연구회 수료
Osstem Implant Master Course 수료
American Dental Association 회원
American Academy of Implant Dentistry 회원

올림픽 치과

OLYMPIC DENTAL CENTER

213.385.4011

2655 W. Olympic Blvd., #206., LA, CA 90006
(Olympic + Menlo Ave. 뉴 서울 호텔 건너편)



**CBD Hemp Oil 제품으로
대한민국 식약청 최초 수입승인 제품**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Dietary Supplement

햄프햄초환

대마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햄프햄초환은 예고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심장병,
치매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탁월한 건강식품!
당뇨 탈출, 숙변제거의 특효!

신이 내린 항암식물!

혈관 청소!
치매 예방

암 전이 예방!
당뇨 탈출

면역력 증강!
숙변 제거



2달분
1,800 환
\$250 +Tax

MANUFACTURED IN THE USA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CBD Oil**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명한 자연치료제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염증을 줄여주어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LA는 **미국암협회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만성통증, 불안증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결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햄초는 어디에 좋은가요?

- 1 높은 영양소의 보고**
90여 가지의 바닷물 속 좋은 미네랄 성분이 그대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채소를 통해서 섭취가 어려운 요오드는 일일권장 섭취량의 약 8배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 2 장에 좋다**
햄초는 장운동을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변비를 해소하고 장내에 쌓인 숙변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장내 독소와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능도 있어 꾸준히 섭취하면 전반적인 장 기능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3 심혈관에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과 혈관의 지방질을 배출해 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 4 당뇨에 좋다**
햄초는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을 억제해주며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5 간에 좋다**
햄초에 들어있는 콜린은 지방간이나 간경변 등과 같은 간질환을 예방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테인 성분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줍니다.
- 6 항암에 좋다**
햄초에 풍부한 게르마늄은 항암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통해 햄초가 간암, 대장암, 유방암 등을 예방하는데 크게 효과적이라는 사실이 보고 되었습니다.
- 7 식이섬유가 많다**
햄초 100에는 약 7~8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시금치의 10배에 달하는 양이다.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는 혈당조절과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콜린 성분이 장내 중성지방을 수용성 지방으로 바꾸어 체외로 배출시켜줍니다.
- 8 칼슘이 많다**
햄초에는 100g 당 칼슘 235mg, 칼륨 650mg, 철분 40mg 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갱년기 여성과 노인들의 골다공증 예방, 전반적인 뼈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그 밖에도 항산화, 피부미용, 두뇌 활동 촉진 등이 있으며, 일본 오히라산장 난치병연구소 이토 소장의 보고서 '놀라운 햄초의 효능' 에 항염증, 항균, 갑상선 기능 증진, 기관지 건강 개선, 근육통 완화 등의 효능이 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Low Sodium Salt 天然 低鹽

BAJA SEA SALT

코셔미네랄 천일염

99.70% 미네랄 소금
최상급 천일염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만든 친환경 천일염으로 최고의 품질과 Kosher(코셔) 인증을 획득하여 미국과 유럽이 인정한 제품입니다.

바하천일염 4대 미네랄	일반 가공소금이 문제!
(정제염 - 맛소금, 맛소금)	(정제염 - 맛소금, 맛소금)
나트륨 Na : Cl	나트륨 (Na)
칼륨 K : Cl	의사들이 소금을 먹지 말라는 이유는 나트륨만 들어있는 소금을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칼슘 Ca : Cl	
마그네슘 Mg : Cl	

515g **\$30** +Tax

바다의 산삼!

BAJA GLASSWORT POWDER

바하햄초분말

청정지역! 바하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된 햄초! 바하햄초분말로 가족의 건강을 챙기세요!

풍부한 식이섬유
아미노산, 무기질
해양미네랄 함유!!!

150g **\$30** +Tax

E.UM Hemp Cafe
☎ (213)386-3896

바하천일염, 바하햄초분말 도.소매 판매합니다.

Westmoreland
Virgil
Wilshire Blvd
Wilshire Pl
EUM Hemp Cafe
이음헴프카페 전시판매장
중앙일보

120세 시대에 건강 동반자

1달분 **\$170**

목회자 50% 할인

Dietary Supplement
HEMP PLUS+
2 TIMES A DAY (15 PILLS)
TOTAL (900 PILLS)

Lowers the Risk of Alzheimer or Parkinson or Stroke

CBD는 신경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신경발생 즉 신경계 조직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CBD가 악화되는 알츠하이머 병의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올가닉 건강기능식품

알츠하이머·파킨슨·각종 암 예방 포물라

햄프플러스

알츠하이머 병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BD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기능이 있다. 항산화, 항염증 그리고 신경보호 및 재생촉진 효과를 보여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을 늦출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CBD는 뇌의 수용체에 작용하여 정신 질환 및 신경계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파킨슨 병에는
체내 도파민 활성화 손상의 감소, 신경보호, 정신병적 등급향상과 환자의 약물, 공격적 행동 감소의 효능이 있다.

커큐민(Curcumin)추가로 치매의 큰 원인중 하나인 아밀로이드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으며 도파민 및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세로토닌의 분비를 증가시켜 준다.

TheHempPlus.com
RopheCentum, Inc.

세계 보건기구(WHO)가 밝힌 알츠하이머, 파킨슨 병, 각종 암 예방에 효과적인 CBD를 햄프플러스로 경험하세요

TheHempPlus.com
hempplusorder@gmail.com

CBD BAJA HAMCHO Inc. ☎ (213)386-3896, (213)605-2772
www.hempbiousa.com hempbiousa@gmail.com 3020 Wilshire Blvd. #100, LA, CA 90010